

한보리 작곡가 '땅·끝·자유·시·노래' 전  
12월 20일까지 해남 행촌미술관서 전시  
김남주·도종환·박남준 시로 노래 만들어



# “손으로 그린 ‘시노래’ 악보에 마음 담았죠”

지난 봄,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이 운영하는 해남 이마도 레지던시로 한홍수 작가를 취재 갔다 반가운 이를 만났다.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던 한보리(62) 작곡가였다. “1년 정도 내 자신을 유배보낸다”는 심정으로 들어온, 유리창 너머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그는 많은 곡을 만들었다. 8개월여 머물면서 만든 곡만 열주 60여곡에 달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집을 읽고 곡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벌써 45년의 세월이다. 그가 작곡한 곡은 5000여곡에 달하고 악보가 남아있는 곡은 2000곡 정도다. 그가 작곡에 곡을 붙인 시인은 김소월·안도현·정호승·김용택·곽재구 등 100여명에 달한다.

오는 12월 20일까지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열리는 ‘한보리\_땅·끝·자유·시·노래’ 전은 아름다운 ‘시노래’를 만들고 불러온 그가 직접 손으로 그린 악보를 전시하는 기획이다. 이마도 작업실에서 그는 해남이 낳은 시인 고정희와 김남주를 비롯해 고산 운선도를 기리는 ‘고산문학상’을 받은 시인들의 시노래를 썼다. 또 오래 전에 써둔 도종환과 박남준 곡을 펼쳐 매만지고 손으로 그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노래·화첩’으로 묶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사문답’ 등 두시인의 ‘시·노래·화첩’과 50여 시인의 시와 본인이 직접 지은 시에 곡을 붙인 악보, 이마

도 작업실 동료작가와 협업한 작품 등 총 60여점을 선보인다. ‘꽃들은 꽃끼리, 잔디는 잔디끼리’라 노래한 고정희의 ‘숲’, 김수열 시인의 ‘자작나무’ 등 마음을 울리는 작품들이 시노래로 만들어졌고, ‘눈으로 보는 노래’가 돼 전시장에 내걸렸다.

“제가 쓰는 곡들은 제가 느꼈던 아름다움의 흔적, 어느 순간 불쑥 나에게 들어온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작품을 너무 아끼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 속에서 나오는 곡들은 저의 ‘개인 일기’ 같은 것이고 그런 솔직한 마음을 담으려했습니다.”

한 씨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오선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선을 그린 후 작업을 한다. 수채화를 그리는 종이에 잉크와 펜으로, 한지에는 먹과 붓으로 하나 하나 음표를 그려나갔다.

“악보를 그리는 게 간단할 것 같은데 꽤 복잡해요. 필기구와 종이 등을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악보는 원래대로라면 초고를 전시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요. 전 초고는 보관하고 연주를 할 때는 컴퓨터로 보기 좋게 정리한 악보를 사용하는데 곡을 쓴 후 1년 쯤 지난 작품을 연주할 때면 그 느낌이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때 초고를 보면 작곡했을 때의 생생한 기억이 떠오르죠. 손으로 그리는 악보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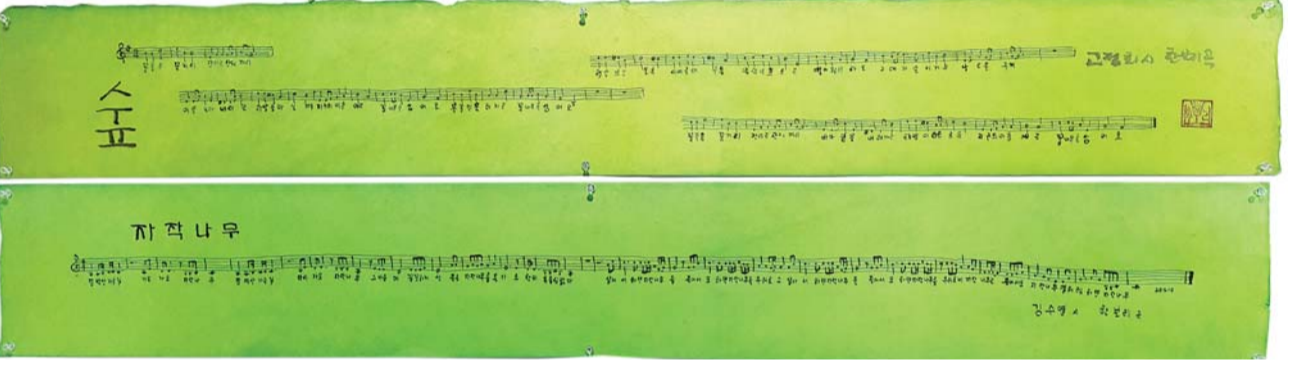
하면 좋겠지만 빠른 속도로 써내려가다 보니 과발개발일 때가 많아요. 이번 전시를 위해 다시 악보를 그리면서 최고의 느낌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했는데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A4크기의 종이에 악보를 그렸다. 올해부터는 작곡도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처럼 넓으면 자유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케치북에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오선지를 쓰지 않았어요. 악상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적으려 늘 펜과 노트를 가방에 넣고 다녔죠. 한데 정작 악상이 떠오를 때 노트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땐 담배갑 등에 적기도 했죠. 선이 그려진 음악노트는 제 작업 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직접 오선을 그어 사용하니 예뻐보였어요. 올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앞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에 동네도 조용하고, 가게도 멀고, 사람들도 잘 찾아오지 않으니 이곳에 들어가면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책 읽고, 시집 읽고, 명 때리고 있다 곡 쓰고 그랬습니다.”

한씨는 이번엔 악보를 그리면서 아주 예전에 만들고 부른 노래를 다시 살펴볼게 됐다. 워낙 곡을 많이 써, 작곡해 두고 한번도 무대에 올려지지 않은 곡들도 많은데 잊혀진 곡들을 다시 돌아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한 씨는 예전처럼 거창하게 음반 작업을 하는 대신 기타, 건반, 퍼커션, 베이스 등 소규모 편성으로 녹음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정제된 음원보다는 조금은 ‘날 것’의 음원으로 기록해두고 싶어서다.”

한 씨는 전시 기간 중 수시로 즉석 공연을 펼치며 전시 마지막 날에는 작품 경매도 열릴 예정이다.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는 미화사 자하루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 출판 기념회서 만나는 ‘백준선의 12지신 그림전’ 20~23일 나주 방원재



새해가 되면 지인에게서 세화(歲畵)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그해 해당하는 동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다.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백준선 작가에게서 해마다 세화를 받았다. 12년 세월이 흘러 십이지신이 모두 모였고, ‘백준선의 12지신 그림전’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최 부회장이 최근 출간한 ‘환상의 남아메리카, 한달’ (다큐 디자인간) 출판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전남대 총동창회 산악회장을 역임한 그는 ‘전남대학교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대’ 에베레스트, 엘부르즈 부단장과 오세아니아 코지아스코, 남극 빈슨 메시프 단장을 맡아 최고봉 원정 성공 여정에 함께했다.

170페이지 올컬러로 제작된 책에는 세계 3대 트레킹 중 하나인 ‘잉카 트레킹’과 사람들을 압도하는 남미의 보물 이과수 폭포,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 끝없이 펼쳐진 방아 위를 걷는 파타고니아 트레킹의 여정이 그가 직접 찍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실렸다.

그는 “여행은 사람을 아물게 한다. 극한의 상황과도 만나고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래서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고 말한다. 저자는 ‘절 따라 찾는 우리 명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다’, ‘캅차카 이야기’ 등을 펴냈다.

전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최 부회장의 서재인 ‘방원재’ (方圓齋)에서 열린다. 자신이 새해 축하의 마음을 담아 보낸 작은 그림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백 작가는 전시 기간 중 방원재를 찾아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재즈로 듣는 클래식

플루티스트 이현경 독주회, 21일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이현경의 13번째 독주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꾸며진다. 늘상 연주하던 정통 클래식과 함께 재즈 버전으로 편곡한 클래식을 함께 들려준다. 올해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이 씨가 클래식의 문턱을 낮춰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현경 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작품번호 1031’,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오이겐 오네긴’ 중 ‘렌스키 아리아’, 존 루터의 ‘교풍 모음곡’, 주앙의 ‘라트비아타 환상곡’이 연주된다.

2부 무대는 바흐의 ‘미뉴엣’,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 바흐의 ‘전주곡 다장조’, 몬테의 ‘차르다쉬’ 등 익숙한 클래식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 들려준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서현일,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김성광, 드러머 하건이 함께 해 즉흥 연주를 선사한다.

이씨는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를 거쳐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에서 유학했으며 프랑스 생모 국립음악원과 러시아 라흐마니노프 음악원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으로 15년간 재직하던 이씨는 2008년 에콜노르말을 창단, 단장겸 지휘자로 활동중이다. 또 올해 초 클래식의 대중화, 취약계층 연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주)에콜드뮤직을 설립, 대표도 맡고 있다. (주)에콜드뮤직은 광주대학교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씨는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춰 접근하면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문화 소외계층 등에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 2만원 (학생 50%할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 57점 입상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용익)이 15일 ‘2019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은 전남에서의 추억과 스토리를 담은 차별화된 사진작품을 발굴, 전남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전남을 홍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남도, 기억을 잇다’라는 주제로 공모전이 열렸으며 총 1472점이 접수됐다. 금상은 신안 태평염전에서 추억의 순간을 담은 차미경씨의 ‘염전체험’이 차지하는 등 모두 57점이 입상했다. 수상작품은 국내외의 관광 박람회와 전시회 등에서 전남을 알리는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수상작은 재단 홈페이지와 남도여행 길잡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상 수상작 차미경 ‘염전체험’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포워드]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12월 20일까지 해남 행촌미술관서 전시

김남주·도종환 시로 노래 만들어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